

김 중 승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 작품연구논문

떨잠의 장식부를 응용한  
합(盒) 디자인 연구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김 송

떨잠의 장식부를 응용한  
합(盒) 디자인 연구

김 종 승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김 송

# 인 준 서

김송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현대 공예는 다양하고 개성있는 복합적인 미를 추구한다. 또한 세계화에 따른 국가적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 콘텐츠와 그에 맞는 디자인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나라의 전통 금속공예품 중 하나인 띠잠의 장식부에서 보이는 조형적 요소를 재조명하여 응용하고자 연구를 시작 하였다. 띠잠의 장식부에는 우리나라 특유의 정서와 집약적 기술, 그리고 동적요소로 장식한 화려하고 은유적인 다양한 표현이 담겨 있다.

그리하여 합(盒)에 띠잠 장식부를 응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바탕이 되는 띠잠의 시대적 배경과 특징, 기법, 재료, 조형적 요소를 문헌을 통해 연구 하였다. 또한 현대의 기법과 재료를 함께 사용하여 현대적 감각에 부응함과 동시에 전통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접할 기회가 적었던 우리 전통 장신구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우리 생활에 가까이 사용하는 공예품을 제작하여 대중과 보다 친밀한 유대 관계를 얻고자 하였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내용	2
II. 멸잠	3
1. 조선시대 수식 장신구	3
2. 멸잠의 조형적 분석	4
2.1. 구조와 종류	5
2.2. 사용기법	7
2.3. 재료와 색채	7
2.4. 미적 특성	8
3. 멸림장식	9
III. 작품 제작 및 분석	11
1. 제작 의도 및 방법	11
2.1. 합(盒)	13
2.1. 합 장식부	14
2.1. 멸림장식	17
2. 작품 및 직품설명	20
IV. 결론	56

## 참 고 문 헌

## ABSTRACT

## 도 판 목 차

<도판1> 떨잠 .....	4
<도판2> 떨잠의 구조 .....	5
<도판3> 떨잠의 종류 .....	6
<도판4> 꽃문양 unit .....	14
<도판5> 꽃문양 pattern .....	15
<도판6> 작품 꽃문양 pattern .....	16
<도판7> 작품 떨림장식 .....	17

## 도 면 목 차

<도면 1> 꽃들의 화려한 축제 .....	22
<도면 2> 순수한 기다림 .....	25
<도면 3> 여리고 곧은 심상 .....	28
<도면 4> 활짝 피어난 기쁨 .....	31
<도면 5> 어릴 적 마음 .....	34
<도면 6> 한여름 밤의 꿈 1 .....	37
<도면 7> 족두리 위에 피어난 꽃 .....	40
<도면 8> 한여름 밤의 꿈 2 .....	43
<도면 9> 홀로 선 나비 .....	46
<도면 10> 뜨거운 낮의 폭죽 .....	49
<도면 11> 해청한 날의 나들이 .....	52
<도면 12> 널 위한 깊은 생각 .....	55

## 작 품 목 차

【작품 1】	꽃들의 화려한 축제 .....	21
【작품 2】	순수한 기다림 .....	24
【작품 3】	여리고 곧은 심상 .....	27
【작품 4】	활짝 피어난 기쁨 .....	30
【작품 5】	어릴 적 마음 .....	33
【작품 6】	한여름 밤의 꿈 1 .....	36
【작품 7】	족두리 위에 피어난 꽃 .....	39
【작품 8】	한여름 밤의 꿈 2 .....	42
【작품 9】	홀로 선 나비 .....	45
【작품 10】	뜨거운 낮의 폭죽 .....	48
【작품 11】	해칭한 날의 나들이 .....	51
【작품 12】	넌 위한 깊은 생각 .....	54

# I. 서론

## 1. 연구 목적

우리 문화는 예로부터 우수하고 뛰어난 전통과 문화유산을 가졌다. 특히 정교함과 화려함을 자랑하는 금속공예는 우리민족의 탁월한 과학적 기교성과 더불어 자연환경에 따른 미의식이 조화되어 보이는 독특한 조형미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우수한 전통 금속공예 중 본 연구자는 주관적 입장에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조선시대의 수식 장신구 중 하나인 떨잠을 대상으로 하였다.

떨잠은 궁중의 왕비나 상급 계급의 부녀자가 의식을 치르는 경우에만 사용하던 수식 장신구로 옥판위에 화려한 색상의 보석을 장식하고 은사로 용수철을 만들어 그 끝에 여러 가지 문양의 장식을 달은 떨림장식을 부착하여 만든 것으로 예술 문화적 가치를 지닌 장신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합을 보석을 담은 용도로 설정하고 장식부에 이를 응용하여 보석함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전통적 요소의 표현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 2. 연구 범위 및 내용

본 연구의 범위는 조선후기(1756-1895)의 떡잡의 장식부를 중심으로 왕비 이하 상류층 부녀자들이 사용하였던 수식 장신구 중에 떡잡을 범위로 하여 나타난 조형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떡잡은 떡림장식을 가지고 있는 장신구 중에서 떡림장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대표적으로 사용된 장신구이다. 이를 중심으로 조형적, 미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공통되는 미를 도출하여 합에 응용함으로써 장식성과 동적 효과를 부여하였다.

떡잡은 다른 수식품에 비하여 장식적인 목적이 크기 때문에 사용자의 신분에 따른 제약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가의 재료와 집약적 기술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합의 장식부에 풍부한 색감과 재질의 특성을 응용하는 것에 토대가 되었다. 또한 기존의 떡잡에 있는 떡림장식을 응용하여 위로만 향하던 기존 떡림장식에 변화를 주어 좀 더 풍부한 공간과 방향성을 형성하도록 실험하였다.

이를 통해 합의 장식부로서의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장식적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전통적 조형미를 주제의 다양한 심상표현과 연관하여 표현하였다.

## II. 떨 잠

### 1. 조선시대 머리장신구

조선시대는 유교사상에 의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고 믿어 왔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거나 몸에 상처나 흠집을 내는 것을 불효라 여겨 머리카락 하나에도 매우 신경을 써왔다. 이로 인해 긴 머리카락의 정리를 위한 다양한 머리장신구 문화가 발달하였다. 여성들의 장식적 욕구는 가채와 같은 형태로 표출되었고, 가채를 꾸미기 위한 수단으로 많은 종류의 머리장신구도 함께 발달하였다.

이러한 사상에 맞물려 조선시대 여성의 머리 형태는 크고 높게 장식되었고, 머리장신구는 많은 재료를 사용하여 장식함으로서 풍성하고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장식은 내면과 극기, 수양을 통한 정숙과 위엄의 특징을 지닌 조선시대 유교 규범과는 어긋나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표현 수단으로 이용 되었다.

이렇게 욕구와 규범 사이의 갈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나타난 것이 머리장신구의 발달을 가져왔으며 또한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조선의 여인들은 비빈(妃嬪)에서부터 궁녀, 상궁, 부녀자, 상천인, 서민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를 두루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의 머리장신구는 인간의 본능인 장식욕구와 미적 본능은 장신구 사용을 자극하여 장식성과 기능성, 상징성, 표현성을 겸비한 장신구들의 출현을 가져 왔다.

## 2. 뿔잠의 조형적 분석



<도판1> 뿔잠, 보나(寶娜) 장신구박물관 소장

뿔잠(蝶簪)<도판1>은 잠(暫)의 한 종류로 일명 ‘뿔철반자’ 라고도 하며, 머리에 꽂으면 잠 전체가 파르르 떨리고 잠에 장식하였던 모든 옥(玉)이나 세워둔 장식이 흔들린다는 점<sup>1)</sup>에서 이름이 유래 하였다.

궁중의 대소의식이 있을 때 왕비를 비롯하여 상류계급의 부녀자들 즉, 내명부에 한해서 예복 착용 시 대수머리·큰머리(떠구지머리)·어여머리를 할 때 화려하게 큰머리에 하나 혹은 셋을 꽂는데, 셋을 꽂을 경우에는 큰머리 전면 중선과 양편에 하나씩 꽂았던 두발용 장식품<sup>2)</sup>으로 머리 중앙에 꽂는 것을 선봉잠(先鳳簪)이라고 하고 양편의 것을 뿔잠이라 한다. 사용자를 상류층에만 국한시킴으로서 착용자의 권위와 위엄을 암시하는 신분 상징으로 애용되<sup>3)</sup>었다.

뿔잠의 길이는 대개 10-12cm로 긴 것은 22-24cm까지 되며 폭은 6-7cm 정도 되는 것이 많고 원형, 방형, 모형, 꽃모양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옥에 칠보, 진주, 산호, 청금석등으로 장식하고 끝에는 은사로 매우 가는 용수철을 만들어 그 위에 금, 은으로 장식을 달았다. 이는 걸음을 옮기거나 움직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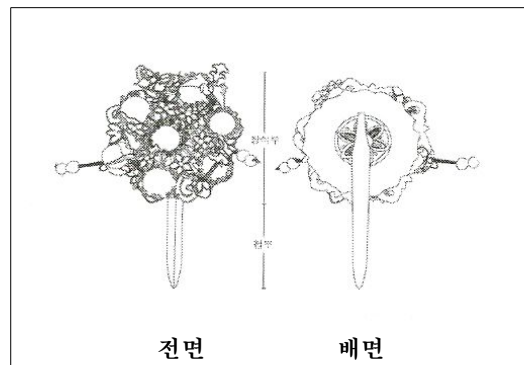
1) 서지민, 『장신구사』, (한국장신구연구원, 1986), pp. 263-264.

2) 유희경,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1981), pp. 283-284.

3) 금기숙, 「韓國服飾에 表現된 흔들림과 떨림의 美」, 『服飾』 15권, (한국복식학회, 1990), p. 127.

때 용수철에 의해 장식이 파르르 떨리는 것으로 화려함을 극대화시켜 조선 시대 예장 최고의 여자 머리장신구로 가장 아름다운 동적 장식이라 평가된다. 따라서 떨잠의 특징은 여러 보석의 색감과 조화, 정교한 장식, 떨림장식의 움직임에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 2.1. 구조 및 종류



<도판2> 떨잠의 구조

떨잠의 구조<도판2>는 장식이 되어있는 장식부와 머리에 꽂을 수 있는 철부로 나눌 수 있다. 장식부는 화려한 보석과 떨림장식으로 장식되어있고 철부는 도금이 되어 있으며, 단단히 꼬아진 머리에 꽂을 수 있도록 끝부분이 좁아지도록 되어있다.

장식부의 형태에 따라 <도판3> 원형, 꽃 모양, 각형, 접형으로 분류 할 수 있고 가끔 비녀와 혼합된 경우도 있으나 드물다.

원형 떨잠이란 장식부의 모양이 둥그란 형태인 것으로 상면 중앙과 주위에 노랑, 파랑, 초록, 빨강 등 여러 색의 구슬이 물려 있고 그 바탕에 배꽃을 양각한 것도 있다. 또한 밋밋한 금속판 상명 중심부에 보석을 물리고 원 둘



<도판3> 떨잠의 종류

레에 장식 없이 알만 물려 단순화된 것도 있으며 옥판에 꽃문양을 투각하고 중앙에 구슬 한 개를 물려 형태가 극히 단순화 된 것도 있다. 원형 안에 또 원을 만든 이중도형에 중심부를 돌아가며 촘촘히 보석을 물린 것도 있고 산호 알을 중심으로 하여 도금한 매화에 죽엽을 장식한 것은 그 사이에 칠보장식을 한 벌, 나비, 봉황, 구슬 등의 형태에 떨림장식을 달아 적절히 배치하였는데 이것은 걸을 때 마다 이것이 파르르 떨려 동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각형 떨잠이란 떨잠 장식부의 밑판이 각진 형태인 것으로 각의 종류에 따라 사각형, 육각형 떨잠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사각형 떨잠은 네모난 옥판에 금속판으로 된 매화, 죽엽, 국화 등의 문양에 여러 가지 색으로 칠보를 입히고 금속선으로 줄기 부분, 잎맥부분을 정교하게 묘사하여 그 사이사이에 보석을 물렸으며, 떨림장식의 끝부분에 진주, 나비 등을 달아 한층 화려함과 섬세함을 더해주었다. 또한 판의 가장자리에는 음각하여 선을 두르고, 바탕을 투각한 육각형의 옥판에 죽엽, 매화 등을 사이사이에 배치하여 유선칠보를 입힌 다음 중앙에 큰 보석으로 물렸다.

접형 떨잠은 현존하는 유물이 매우 드물며 이것은 나비모양의 판에 여러 가지 문양을 투각한 후 부분적으로 칠보를 입혀 보석을 물리고 떨림장식을 달아 나비, 구슬, 잠자리, 봉황, 벌 등으로 장식하였다. 동적 움직임을 표현

한 부분의 구조는 주로 스프링과 구슬이나 금속으로 문양이 연결된 형식<sup>4)</sup>의 떨림장식으로 쓰였다.

## 2.2. 사용기법

투각법, 감입법, 파란(칠보)기법, 옷칠기법, 각기법, 은고색(착색기법), 보석감입기법, 도금기법(수은금 도금) 등이 있으며 문양은 실물처럼 정교하고 사실적인 형태를 갖춘 것과 단순화된 것이 있는데 주로 정교한 꽃이나 나비형태가 조각된 금속판이나 옥판위에 꽃잎, 꽃 수술로 장식한 것이 많다. 보석물림은 판위의 꽃받침에 각종 보석을 물리는데 사용된 기법으로 특히 거미다리 기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 기법은 알을 물리는 은 조각이 거미다리의 형태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보석 알이 빠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 2.3. 재료와 색채

떨잠에 나타난 재료로는 옥, 칠보, 은, 진주, 산호, 보패류 등이 있다. 대체적인 형태는 금속류(금, 은, 동)와 동물의 뼈, 나무, 옥을 기본으로 큰 구조를 만들었고 그 위에 올린 장식으로는 밀화, 진주, 산호, 비취, 청금석, 옥, 칠보 등을 사용하였다. 기타 사용 재료로는 파란, 칠보, 옷칠 등을 사용하였다.

재료와 연관이 큰 색채는 떨잠의 장식부를 옥을 투각 또는 조각하여 사용하거나 금속판을 이용한 것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옥색과 백색, 황금색이 넓

4) 석주선, 『한국복식사』, (보진제, 1971), p. 73.

은 면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홍색, 인주색, 초록색, 청록색, 하늘색, 파란색, 자색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착용된 모습에서는 검은 머리와 대비를 이루며 상부에 달리는 장식은 칠보와 보석의 화려하고 다양한 색의 조화를 느끼게 해준다. 백의민족이라는 우리의 민족성을 볼 때 떨잠에 사용된 다채색의 강한 보색 대비는 화려한 색채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흥미롭다.

## 2.4. 미적 특성

떨잠은 검은 머리와 색 대비를 통해서 장식부의 화려한 칠보와 원석, 보석들의 화려하고 다양한 색의 조화를 느끼게 해주며, 장식 상부에 달리는 장식은 정교하고 섬세하여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동시에 잔잔히 떨리는 떨림장식의 리듬은 여인의 우아하고 은은한 미를 유발한다. 이런 움직임은 자연력에 의해 움직임을 도출한 것으로 그 방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독창성을 나타내며, 풍류사상과 자연주의의 경향이 혼합되어 있어 한국의 멋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섬세함과 율동미를 느끼게 하는 리듬은 시간을 포함하는 실제적인 율동미로 착용자의 율동에 반응을 나타내며, 공간감까지도 내포하는 새로운 표현양식<sup>5)</sup>이라 할 수 있다. 까맣고 윤이 나는 머리의 아름다움에 떨잠과 머리꽃이 장신구를 이용해 화려함을 더하였고 떨림장식을 달아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거리는 떨림장식을 달아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거리는 떨잠은 여자 두식 중 가장 아름다운 율동미를 연상시키는 동적장식<sup>6)</sup>이라 할 수 있다.

5) 금기숙, 「韓國服食에 表現된 흔들림과 떨림의 美」, 『服飾』 15권, (한국복식학회, 1990), p. 127.

6) 이선재, 고미연, 「朝鮮時代 女性의 頭飾에 관한 연구」, 『生活科學研究誌』 1호12권 (숙명여자대학교 건강생활과학연구소, 1997), pp. 95-119.

### 3. 떨림장식

떨림은 공기의 흐름이나 힘의 충격을 받아 어떤 물체가 매우 작은 폭으로 빠르고 탄력 있게 계속 되풀이 하여 흔들려 움직이다(tremble)<sup>7)</sup> 라는 사전적 의미로 정의된다.

본 연구의 ‘떨림장식’은 사전적 의미와 같은 움직임과 동시에 떨짐에서 동적요소를 표현한 용어로 사용하였다. 이론 정리 과정에서 참고한 문헌에 ‘떨쇠’, ‘떨새’ 등과 같이 그 의미가 불분명하여 본 논문에서는 앞의 지칭하는 용어들과 같은 의미의 ‘떨림장식’이라는 용어로 통일시켜 사용하였다. 이는 스프링과 상부에 보석, 금속으로 문양이 연결된 형식의 장식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조선 후기 여성 머리장신구 중 떨짐에 나타나는 잔잔한 동적 표현의 떨림장식은 동적 표현에 가장 적당한 표현이 된다. 흔들림 보다 상대적으로 작고 단단한 느낌의 움직임으로 하늘거리며 조심스러워 보이는 동적요소는 율동미를 만들어 낸다. 이 율동미는 기능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장식적 동기에서 생겨난 미적 특징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장신구에서 요구되는 것이 기능성과 실용성과는 무관한 장식에 의한 요소, 즉 심미성에 입각한 장식의 요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미적의지가 표출된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떨림장식의 특징은 착용자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순수한 장식의지가 함축<sup>8)</sup>되어 있다.

떨림장식은 자연력에 의해 움직임을 도출한 것으로 그 방법적인 문제에 있

7) 『한국어 대사전』, (현문사, 1975), p. 62.

8) 금기숙, 「韓國服食에 表現된 흔들림과 떨림의 美」, 『服飾』 5권, (한국복식학회, 1990), p. 121.

어서 독창성을 나타내며 울동을 주는 소소한 움직임을 통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아름다운 심적 발상까지도 연관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의 역할을 한다고 하여 이를 풍류사상과 우리 민족 고유의 자연친화적 경향이 혼합<sup>9)</sup>된 표출로 해석하기도 한다.

또한 떨잠의 작은 공간 안에 금속의 다양한 기법을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공간감을 잘 표현한 공예품으로 다른 장신구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장식적인 목적이 크므로 신분이 높을수록 고가의 재료를 많이 사용한 것이 특징이며, 떨림장식의 방향은 대체로 위를 향하고 있는 용수철로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떨림장식의 방향을 다양하게 응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자 하였다.

---

9) 금기숙, 「韓國服食에 表現된 흔들림과 떨림의 美」, 『服飾』 5권, (한국복식학회,1990), p. 128.

### Ⅲ 작품 제작 및 분석

#### 1. 제작 의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떨잠의 장식부를 합에 응용함으로서 실용성과 조형성을 갖춘 합 디자인을 표현하였다. 특히 문화의 변화로 인해 우리 문화의 한 부분인 떨잠이 잊혀져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작업을 시작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떨잠의 조형적 요소들을 분석하여 조형적 요소들을 각각 따로 분리한 다음 다시 재조합하는 방법으로 작업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화려하고 집약적인 느낌의 조합을 꾀하고자 하였다.

떨잠의 사용기법 중 일부는 현대적 기법으로 작업하였는데 각기법(刻技法)은 CAD 3D를 이용하였고, 투각법(透刻法)은 unit들을 땜하여 pattern 작업을 통해 투각하였을 때의 느낌을 전달하였다. 각종 보석을 물리는 방법은 과거의 거미다리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크기가 큰 보석의 경우 이중 난집이나 발 난집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사용재료는 과거에도 사용된 옥, 칠보, 진주, 산호, 보패류 등을 사용함과 동시에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합성석, 페리도트, 아게이트, 옉닉스, 터퀴이즈 등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존의 떨잠의 장식부에서 보이는 보색대비와 오방색의 색감에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표현의 도구적 역할로 사용하였다.

또한 떨잠 장식부의 떨림장식이 하늘을 향한 수직 각도를 이루고 있던 것을 본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방향의 각도로 응용하였다. 수직 각도와 반구형의

각도 배열과 부채꼴 형태 각도 배열을 통해 떨림장식의 운동에 탄성을 달리하여 나타나는 효과를 실험하였다.

위와 같은 작업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떨림의 장식부와 떨림장식을 현대적인 감각을 통하여 합 장식부에 응용함으로써 실용성과 조형성을 갖춘 금속 공예를 표현하였다.

## 1.1. 합(盒)

합 몸체 부분은 우리나라 전통 쓰개류 중 관모와 족두리 등의 형태를 단순화시켜 작업하였다. 남성 관모와 족두리에서 보이는 선을 바탕으로 하였는데, 남성 관모의 선은 모던하고 차분하면서도 절제된 곡선의 느낌으로 합의 몸체 디자인을 이끌었다. 또한 여성 머리장신구인 족두리에서 보이는 여성적인 곡선의 풍부하고 볼륨감 있는 느낌을 이끌어내 이를 한국의 아름다운 선을 표현하는 모티브(motive)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합 몸체에서는 전통 남성 관모와 여성의 족두리의 절제된 곡선과 풍부한 볼륨감을 화려한 장식부와 대비 되도록 하였다. 하지만 전개과정의 단순화 되는 과정에서 그 형태의 변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론적 정리는 생략하였다.

합의 몸체 작품 의도의 가장 큰 목적은 장식부와의 대비에 있다. 장식부는 합 몸체에 비해 동적요소와 보석 및 기타 재료 사용으로 인해 화려하기 때문에 몸체는 장식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떨림장식의 가늘게 떨리는 느낌을 부각시키기 위해 무게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동시에 떨림장식의 약한 구조(스프링)라는 단점을 보완하는 높이와 넓이를 확보하는 구조적인 역할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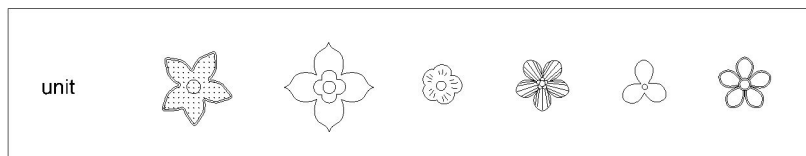
합의 구조는 보석합의 용도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합 내부에 닿을 때 장신구의 보호를 위하여 벨벳으로 안쪽을 감싸고, 필요에 따라서 담기는 장신구의 종류에 따라 칸막이로 분리하거나 구조적인 장치를 달리하여 수납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 1.2. 합 장식부

본래의 떨잠의 구조는 옥판 위에 화려한 색상의 보석 등으로 장식한 위에 동적 요소인 떨림장식이 달려 있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이 부분을 합의 장식부로 응용하고자 하였다.

합의 장식부와 합과 맞는 부분에 금속판이나 원석 판으로 배치하고 그 위에 또 하나의 구 형태의 금속을 올리기도 하였다. 이는 떨림장식의 구조인 스프링 부분이 합을 여닫는 과정에서 파손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높이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장식부의 주된 작업 중 하나는 꽃문양 unit<도판4>을 뽑아 구 형태로 제작하여 구조적인 부분으로 제작하는 것이었다. 꽃문양의 unit은 5mm에서 12mm사이 크기로 매우 작아 정밀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CAD 3D를 이용하여 결과물을 RP<sup>10)</sup>로 출력해 얻는 방법으로 작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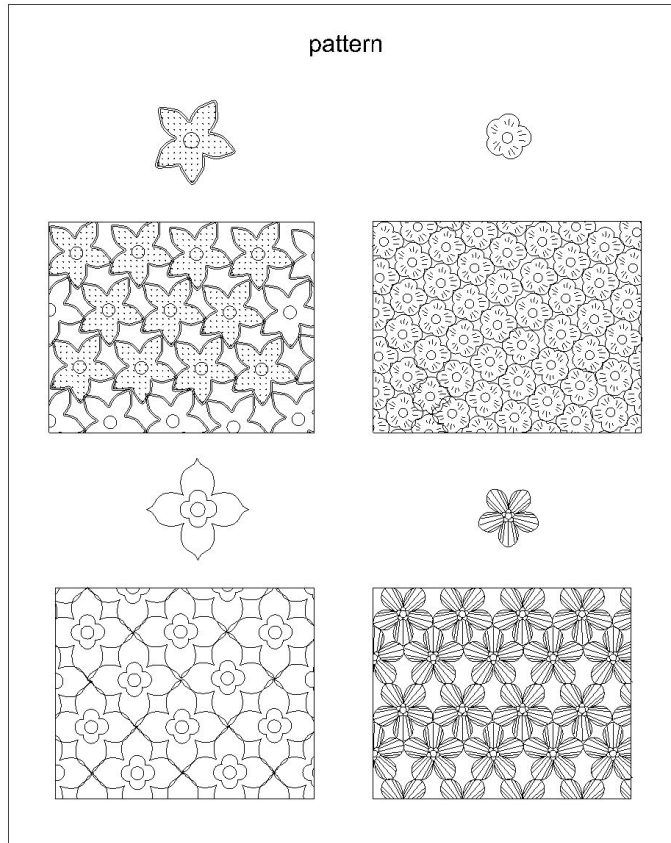


<도판4> 꽃문양 unit

꽃문양은 화목, 다복(多福), 부귀(富貴), 다손(多孫), 여의(如意)등을 의미하는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된 문양이다. 또한 장식적 요소로서 화려함을 돕는 역할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였다. 총 7가지 꽃문양을 단순화하여 디자인하고 2가지는 첼보를 입히기 용이한 구조로 작업하였다. 이것을 복제하여 구면

10) Rapid Prototyping (3차원 고속 적층 조형법)

(球面)으로 파인 부분에 배열한 후 뿔하여 구 형태를 제작하거나, 면 형태로 제작하고, 또는 떨림장식의 스프링 끝에 배치하기도 하였다.



<도판5> 꽃문양 pattern

이와 같은 제작은 각각의 꽃문양의 unit을 pattern화<도판5>하여 기하학적인 형태의 큰 틀을 설정하고 그 안에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뿔하는 것이 공통된 작업이었다.

여기서 꽃문양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unit이 되고 이 unit들은 단독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조합하고 배열하여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전개를 통하여 정

해진 공간에 문양을 반복하여 배치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평면과 반구형, 구형<도판6>등의 다양한 입체화를 통해 그 자체의 unit과 pattern 제작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표현해 보았다.



구형 조합

반구형 조합

평면 조합

<도판6> 작품 꽃문양 조합 pattern

이는 면으로만 이루어진 면, 또는 구 형태보다 무게감이 적고 시원한 느낌을 주며 unit들 틈으로 뚫린 부분을 통해 볼륨감과 부피감이 느껴지게 하고자 하였다. 또한 하나의 판으로 된 것이 하나의 공간을 표현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중의 공간을 표현하게 됨으로서 좀 더 풍부해 보이는 효과를 의도하였다. 구형태의 볼륨을 이용하여 떨림장식의 각도 역시 작품의 성격에 맞춰 볼륨감 있게 배치하였으며, 합 몸체와 떨림장식의 사이에 각기 다른 방향의 배치로 인해 느껴지는 산만함은 큰 원석을 배치함으로써 통일성 있도록 잡아주고 떨림장식의 움직임이 더욱 부각되도록 의도 하였다.

떨잠을 모티브로 표현함에 있어서 떨잠의 기본적인 밑판이 되는 금속판, 혹은 옥판이었던 부분은 다양한 색으로 표현하고자 여러 가지 원석으로 대체 하고 꽃문양의 unit들을 볼륨감 있는 면으로 땀하여 단순한 형태이지만 밀도 있는 작업을 통해 다양하게 하였다.

### 1.3. 합 장식부의 떨림장식



<도판7> 작품 떨림장식

장식부의 떨림장식<도판7>은 스프링과 스프링 끝에 보석류와 칠보, 혹은 꽃문양의 작은 unit을 부착하였다. 스프링의 텐션으로 인한 운동은 에너지가 머무는 동안 힘차게 운동하다가도 에너지가 소멸하는 순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운동은 스프링 탄성의 조정을 통하여 큰 폭으로 운동하기도 하고 아주 작은 폭으로 파르르 떨리는 운동으로의 조정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작은 폭으로 빠르게 운동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형(形)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불분명해 보여 신비롭고 몽환적인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스프링의 운동을 작품의 심상(心想) 이미지와 연관되도록 의도 하였다.

또한 스프링 끝에 부착한 금속 unit과 보석은 떨림장식이 흔들릴 때 광택으로 인한 반짝거림과 주제와 연관된 색채의 연상을 가능하게 하였다. 금속 unit의 경우 금속표면 광택으로 인한 반짝거림을 관찰할 수 있고, 칠보로 색을 입혀 사용한 unit은 유약의 은은한 빛의 반사를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보석 역시 각각의 보석이 가진 표면질감에 따른 다양한 효과의 광택을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제작한 합의 떨림장식은 동적 효과(리듬감, 빛의 반사에 의한 시각효과)와 운동을 할 때 생겨나는 공간감을 가지는 조형성을

가지도록 의도하였다.

떨림장식의 각도는 기존 떨잠 장식부의 떨림장식이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90°를 이루고 있는 것을 180°내에 반구형의 반경 안으로 다양하게 응용하여 각도를 다양하게 배치해 보았다. 떨림장식의 흔들림은 스프링의 텐션과 깊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텐션의 조정을 통해 활동 반경과 떨림의 정도를 조절하였다. 예를 들어 180°의 반경 안에 배치 할 경우에는 정수리 부분의 떨림장식의 텐션이 느슨할 경우 바로 옆에 배치된 떨림장식과 엉키거나 부딪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텐션은 다각도로 배치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었다. 이와 같이 보석류, 꽃문양 unit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텐션을 조정하여 리듬감과 입체적 공간감을 형성하도록 표현하였다.

떨림장식 끝부분에 부착한 재료는 색채를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색채는 표현성을 가지기 때문에 주제에 근거한 색채는 연상에 가장 직접적인 표현방법이 되었다. 이는 작품 분위기의 느낌을 구체화하고 작품에 인상을 부여하며, 취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본 연구 작품에서 보석합 몸체와 금속 장식들이 모두 은백색이었기 때문에 재료의 색채는 작품의 전체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따라서 떨림장식의 색채는 각각의 작품 주제의 감성과 어울리도록 사용하였다.

기존의 떨잠 장식부의 재료의 색상은 옥색, 백색, 황금색, 다홍색, 인주색, 초록색, 청록색, 하늘색, 파란색, 자색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보색대비, 혹은 오방색에 근원을 둔 규칙이 있다. 특히 떨잠의 장식부가 옥판을 크게 사용하여 전체적인 색채의 분포도의 비중에 옥색이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작품에서는 기존의 옥을 밀바탕이 되도록 사용하여 색채의 비중을

넓힌 떨잠에 착안하여 옥 대신 다양한 색의 원석을 사용하여 전체적 분위기를 주도하는 다른 분위기의 재료들을 사용하였다. 또한 기존 떨잠 장식부의 재료들과 함께 옉닉스와 장미수정, 터키석등과 같은 현대의 재료들을 함께 사용하였다. 기존의 오방색과 보색대비 위주의 색감보다는 각 작품의 의도한 바를 나타낼 수 있는 색채를 지닌 재료들을 사용하였다.

사용 기법은 떨잠에서 보이는 거미다리 기법을 사용하여 고전적인 느낌을 살렸으며, 이중 난집과 발 난집 등을 작품에 맞게 사용하였다. 이와 함께 비즈워크(beads work)를 통해 불이 달린 가는 은사에 작은 원석 구슬들을 끼워 사용 하였다.

또한 과거에 금사, 은사로 가늘게 용수철을 만든 스프링 대신 스테인리스 스틸(stainless steel)로 만들어진 코일 스프링(coiled spring)을 이용 하였다. 코일 스프링은 금사, 은사로 만든 떨잠의 용수철보다 텐션과 부착하는 보석류와 금속의 무게를 견디는 인성이 뛰어나고 경제성도 효율적이어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단 검은 빛이 강했기 때문에 니켈 도금 처리를 하여 사용하였다.

코일 스프링은 하늘하늘하고 가벼운 느낌을 주고 본체 금속의 단단함과 대비되도록 비례에 알맞은 두께를 사용하여 스프링 위의 장식들이 더욱 부각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작업한 떨림장식은 함에 진동이 가해지거나 바람, 혹은 사용할 때 반응하는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서 흥미를 유발시키고, 정적인 사물에 동적 요소를 추가하여 좀 더 화려한 장식부를 표현하였다.

## 2. 작품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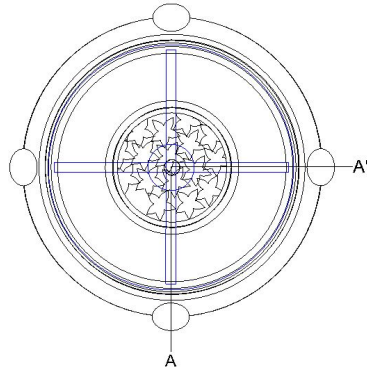


【작품 1】 꽃들의 화려한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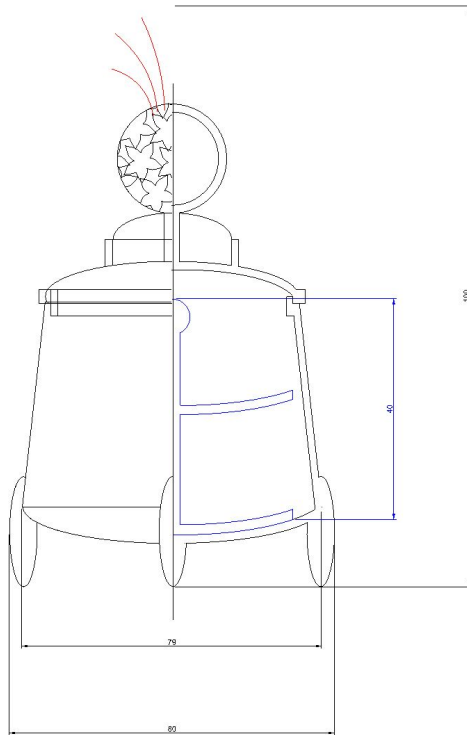
80×80×110(mm)

Silver, Copper, Stainless steel coiled spring, Rayon velvet, Sard, Coral,  
Rose Quarts, Pearl, Agate, Amber, Enamel, Dyed Green Quarts, Sardonyx

top view



front view & section A-A'



<도면 1> 꽃들의 화려한 축제

## 【작품 1】 꽃들의 화려한 축제

자신만의 자태를 뽐내는 꽃들의 화려한 모습을 표현하였다. 꽃은 오랜 시간의 기다림 끝에 피어나고, 그 기다림 끝에 피어난 자신의 아름다움을 유감없이 표출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아름다움은 정해진 짧은 시간동안만 허락된다. 그리하여 꽃은 그 짧은 시간 동안을 후회 없이 즐기고 있을 것이라는 설정을 담았다.

축제라는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해 떨림장식의 위에는 꽃문양의 작은 unit들과 붉은 계열의 원석과 진주, 호박을 비즈워크(beeds work)하여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꽃문양 unit들을 구 형태로 제작 후 하나의 덩어리이자 구조적인 부분으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제작은 면으로만 이루어진 구 형태보다 무게감이 적고 시원한 느낌을 주며 unit들 틈으로 뚫린 부분을 통해 부피감을 주었다.

이와 같은 구 형태의 볼륨을 이용하여 떨림장식의 각도 역시 볼륨감 있게 배치하였으며, 합 몸체와 떨림장식의 사이에 큰 자마노를 배치함으로써 각기 다른 방향의 배치로 인해 느껴지는 산만함을 통일성 있도록 잡아주고 떨림장식의 움직임이 더욱 부각되도록 하였다. 합의 형태는 심플한 저변(底邊)이 넓은 원기둥 형태로 위아래 볼륨을 주어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으며 내부 공간의 용도는 간단한 목걸이 매달이나 반지 등을 보관하는 용도의 구조로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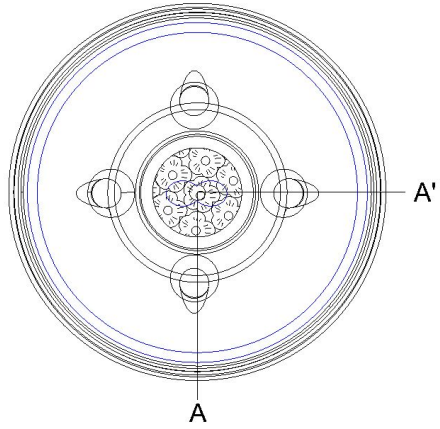


**【작품 2】 순수한 기다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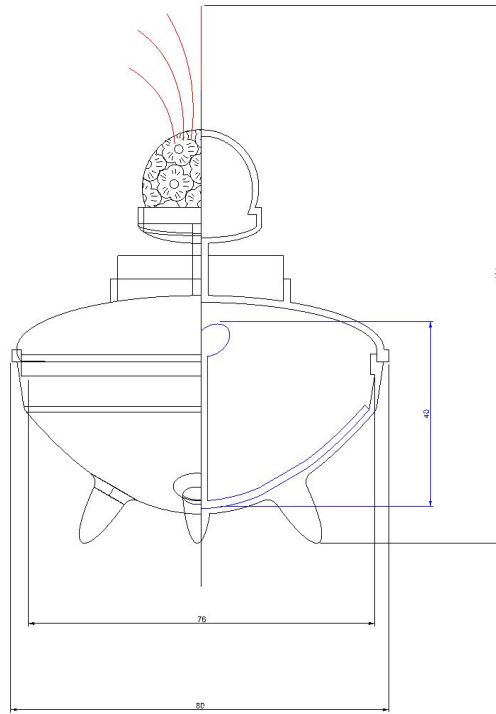
80×80×100(mm)

Silver, Copper, Stainless steel coiled spring, Rayon velvet,  
Coral, Rose Quarts, Pearl

top view



front view & section A-A'



<도면 2> 순수한 기다림

## 【작품 2】 순수한 기다림

떨림장식의 동적운동인 떨림의 느낌은 긴장되고 초조한 마음, 혹은 애뜻한 느낌으로 대입시켜 보았다. 떨림장식의 움직임처럼 기다리는 마음의 애뜻하고 긴장된 초조한 느낌을 대입하여 기다리는 소녀의 기다림을 표현하였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장미수정의 반투명한 옅은 분홍빛을 합 중간에 넓게 배치하고, 원석 위로 또다시 꽃문양 unit들을 반구형으로 배치하였다.

떨림장식은 꽃문양 unit으로 만든 반구형의 정수리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배치하고 주제의 어린 소녀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5개만 배치하여 심플해 보이도록 하였다. 또한 떨림장식의 윗부분에는 진주와 분홍빛 자개를 부착하여 장미수정과 통일성을 느끼게 하였다.

합은 깊이가 얇고 지름이 넓은 형태이기 때문에 장식부에 좀 더 높이를 주어 전체적인 비율이 늘리지 않도록 하였다. 얇은 원뿔형으로 된 합의 본체 내부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바구니와 같은 구조로 제작 하였으며, 이와 같은 공간은 브로치와 같은 크기의 수납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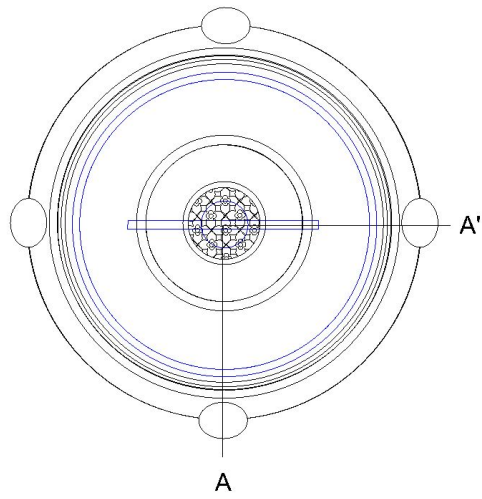


【작품 3】여리고 끝은 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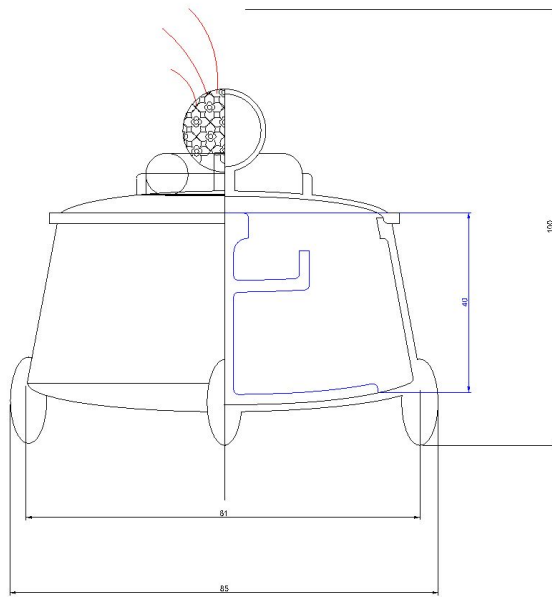
85×85×100(mm)

Silver, Copper, Stainless steel coiled spring, Rayon velvet,  
Pearl, Onyx

top view



front view & section A-A'



<도면 3>여리고 끈은 심상

### 【작품 3】여리고 곧은 심상

떨림장식의 운동과 보석의 색채를 이용하여 주제의 심상을 전달하고자 하였고, 세속에서 벗어나 여유롭게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수양하는 선비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 작품의 떨림장식 스프링은 비교적 얇은 스프링을 사용하되 탄성을 조절하지 않고 떨리는 반경이 좁게 하여 강인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탄성의 성질을 “곧다”라는 주제로 표현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떨림장식의 각도는 수직으로 하였다.

또한 선비의 단아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옉스과 블랙 다이아몬드, 진주를 사용하여 화려한 색채보다는 흑백대비의 깔끔한 색채로 배치하였다. 원석이 크게 들어간 옉스 부분은 도넛 형태로 가공하여 배치함으로서 단조로움을 피하고 볼륨감을 주었다.

중간에 들어간 구 형태는 꽃문양 unit을 뺀하여 만든 것으로 투각된 공간 사이에 틈을 주어 시각적이고 새롭게 형성된 면이 보이도록 하였다.

합의 형태는 장식부의 흑백의 색채로 시선이 모아지게 하기 위해 낮고 넓게 제작하였고 무게감 있는 형상을 표현하였다. 또한 낮지만 넓은 내부 구조를 활용하고자 중앙의 봉에 고리를 달아 목걸이와 귀걸이와 같이 체인 혹은 고리가 있는 장신구의 수납이 용이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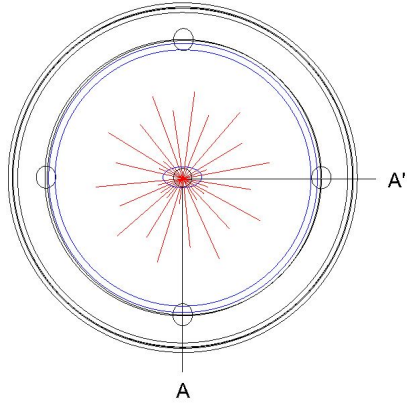


**【작품 4】 활짝 피어난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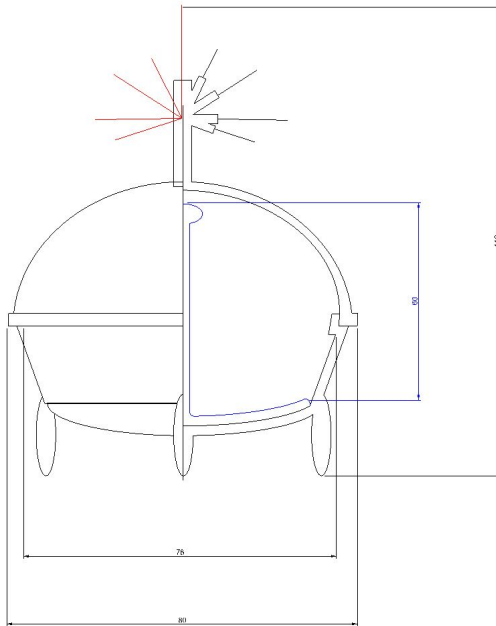
80×80×110(mm)

Silver, Copper, Stainless steel coiled spring, Rayon velvet,  
Coral, Rose Quarts, Pearl, Agate, Amber, Enamel, Turquoise, Shell, Peridot,  
Rock Crystal, Fluorite

top view



front view & section A-A'



<도면 4> 활짝 피어난 기쁨

#### 【작품 4】 활짝 피어난 기쁨

떨림장식의 화려함을 보다 극대화 시켜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360도 반경에 떨림장식을 배치하여 떨림장식 자체의 화려한 동적 요소를 활용하였다. 떨림장식들의 중심부분에 크기가 큰 진주를 배치하여 중심을 잡아주었고, 이것을 중심으로 파생된 떨림장식의 각도를 맨 윗줄은 약 45도의 가상의 선을 기점으로 위쪽으로 45도 정도로 서있도록 배치하고 중간 선상의 떨림장식은 수평으로, 그 아래쪽에 배치된 떨림장식은 -45도로 배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떨림 운동을 할 때 각각의 장식들이 붙지 않도록 탄성을 조정하여 활동 반경을 좁혀 주었다. 이와 같은 배치로 주제의 “활짝 피어난”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기쁨”의 느낌이 주는 밝은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파스텔 계열(열은 핑크, 하늘색, 연두색, 흰색)의 보석류를 사용하여 스프링에 부착하였다. 이 색채감은 떨림 운동과 함께 화려함을 극대화 하는 효과를 얻었다. 합이 윗면에 비취지는 영역까지 이중으로 비취지기 때문에 좀 더 풍성하게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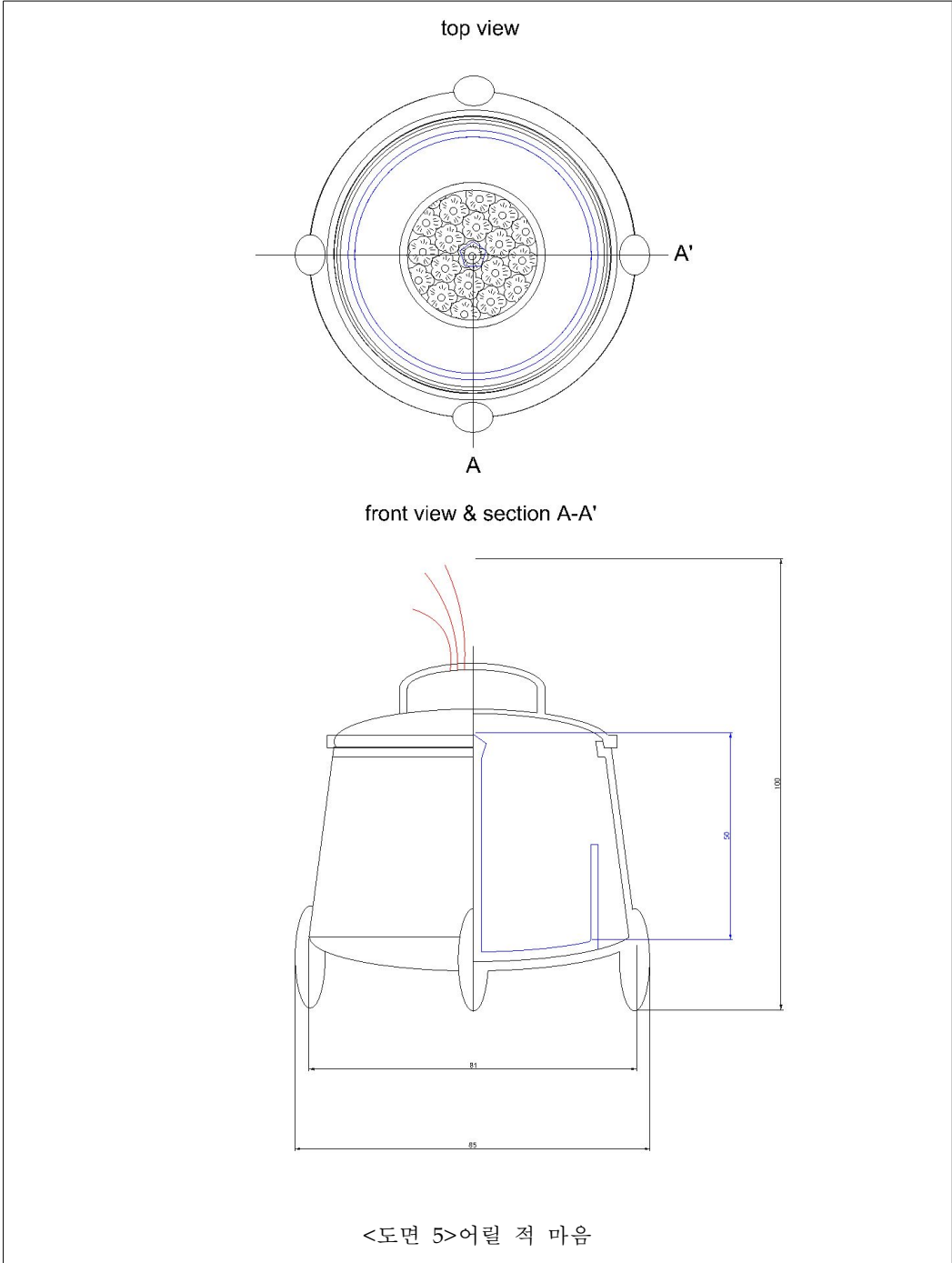
합 뚜껑의 크기가 크고 몸체가 낮기 때문에 비교적 크기가 큰 장신구의 수납이 용이한 구조로 합 뚜껑 내부 구조의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작품 5】 어릴 적 마음**

85×85×100(mm)

Silver, Copper, Stainless steel coiled spring, Rayon velvet,  
Coral, Amber, Dyed Green Chalcedony, Onyx



## 【작품 5】 어릴 적 마음

동심의 푸릇했던 느낌을 표현하고자 장식부의 높이를 낮게 하였다. 따라서 평면에 가까운 낮은 언덕과 같은 느낌으로 꽃문양 unit을 pattern화하여 원석으로 넓게 들어가는 부분을 대체하였다. 이와 같은 부분을 통하여 아무 걱정 없는 천진난만한 동심의 평화로움을 표현하였다.

이와 함께 떨림장식의 스프링의 길이도 비교적 짧게 하고 텐션 역시 작게 조정하여 배치하였다. 스프링 각도는 꽃문양 unit을 이어 만든 판의 중앙을 중심으로 약 70도에서 80도 정도로 맞추어 미성숙했지만 순수했던 동심의 느낌을 전달하였다. 개수 역시 6개로 간소화 하여 단순하게 표현하였으며, 과장되지 않은 생명력을 느끼게 하였다.

떨림장식 위에 부착한 원석의 색은 크레용으로 어릴 적 자유롭게 자신의 상상을 스케치북에 옮겨 그리던 느낌을 주기 위해 크레용 색채처럼 원색의 불투명한 보석류를 사용하여 주제의 느낌을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원색의 색채는 떨림장식의 움직임이 더욱 부각되는 효과를 관찰 할 수 있었다.

합은 장식부와 주제의 느낌과 통일되게 하기 위해 합의 지름과 높이를 1:1 비율로 하였으며 내부 구조는 합이 전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구조 장치를 생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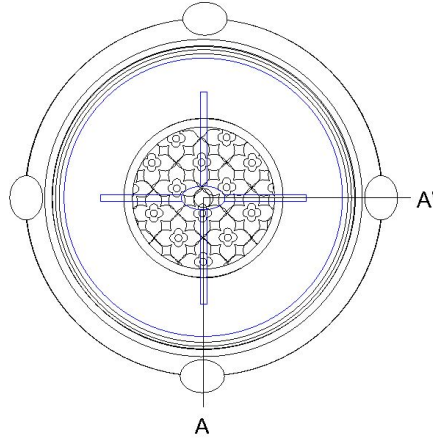
**【작품 6】 한여름 밤의 꿈 1**

65×65×12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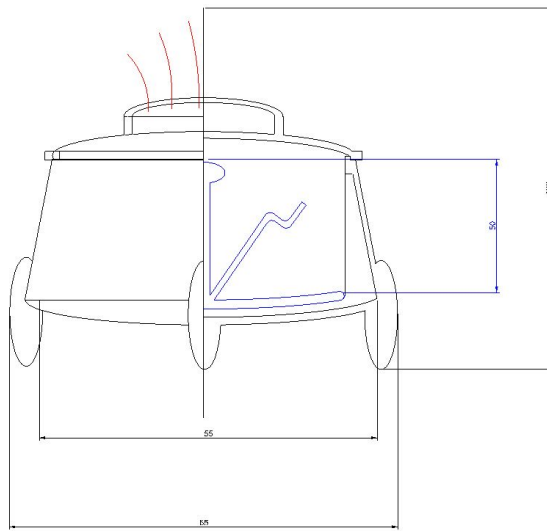
Silver, Copper, Stainless steel coiled spring, Rayon velvet,  
Rock Crystal, Agate, Turquoise

- 35 -

top view



front view & section A-A'



<도면 6> 한여름 밤의 꿈 1

## 【작품 6】 한여름 밤의 꿈 1

더운 여름날의 무더운 기운을 표현하기 위해 전체적인 합의 높이를 낮고 넓게 제작 하였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넓적하고 낮은 몸체와 대비 되도록 장식부를 디자인 하였다.

이에 장식부의 떨림장식의 각도는 여름밤 바닷가의 폭죽을 쏘아 올리는 듯한 시원한 느낌을 주기 위해 수직으로 조정하였다. 스프링의 수직 각도는 사선의 각도보다 떨림 운동의 탄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스프링 사이의 간격을 비교적 넓게 배치 하였다.

또한 여름밤의 바닷가를 상상하도록 유도하고자 파란색과 짙은 파란색의 터퀴이즈와 투명한 퀴즈, 하얀색의 아게이트를 사용하여 가볍고 시원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합의 형태 위에 꽃문양 unit을 이어 만든 얇은 판 형태로 unit을 pattern화 하였는데 꽃문양 unit들 사이에 생긴 공간은 평면적인 형태에서 오는 답답함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만들려고 하였다.

내부는 반지를 걸어 수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 하였으며 그 외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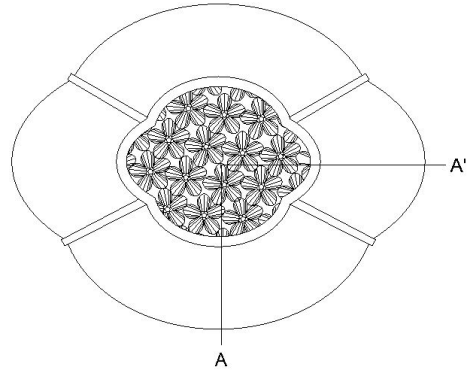
**【작품 7】 족두리 위에 피어난 꽃**

70×90×115(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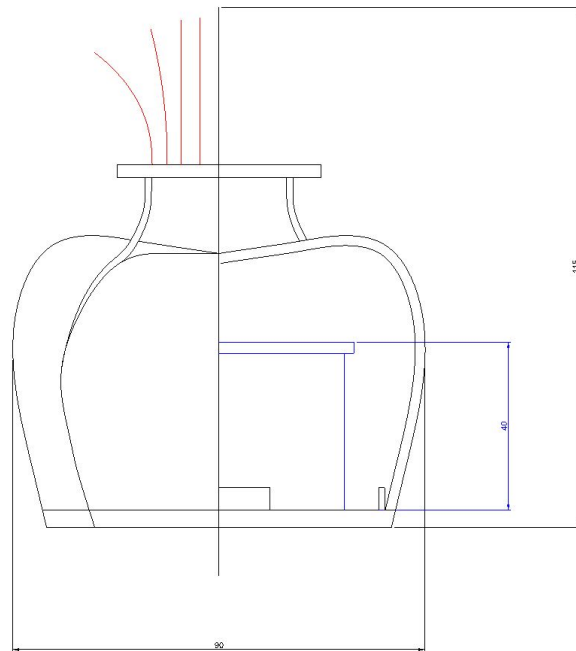
Silver, Stainless steel coiled spring, Rayon velvet,  
Amber, Onyx, Coral, Milky Quarts, Pearl, Agate, Enamel, Turquoise

- 38 -

top view



front view & section A-A'



<도면 7> 죽두리 위에 피어난 꽃

## 【작품 7】 족두리 위에 피어난 꽃

몸체의 모티브를 족두리로 하였다. 족두리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분할되는 면과 형태가 다양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4개로 분할된 족두리를 기본으로 하여 디자인 하였다. 우리나라 전통 혼례에서 보편적으로 널리 쓰인 합은 신부의 예장의 포인트가 되던 것으로 마치 새로운 출발을 앞둔 부푼 신부의 마음을 표현한 듯 한 형(形)으로 되어 있다. 이를 합 몸체의 풍부한 곡선과 볼륨감을 표현할 수 있는 모티브로 하여 여성적인 부드러움을 몸체의 곡선으로 표현하였다. 합 몸체의 선을 강조하기 위해 몸체 전체가 합의 뚜껑이 되는 구조로 디자인 하였고, 동그란 형의 뚜껑과 평면이 되는 몸체에 의한 내부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족두리의 단면 형태의 기둥 구조를 제작하여 수납공간을 만들었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형태가 주는 심플함과는 달리 이 작품은 볼륨감과 부피감이 풍부하도록 의도 하였다.

이는 4조각의 은판을 망치 성형하여 이어 제작하였고 윗부분에 장식부는 공중으로 띄워 합의 볼륨과 평면의 판 사이의 공간을 주어 공간감을 주었다. 장식부의 중간역할을 하는 금속판은 앞의 작업과 같이 꽃문양의 unit들을 pattern화하여 투각한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는 몸체 윗부분의 은에 pattern화한 판의 밑면이 비춰져 공간감과 깊이감을 강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떨림장식은 우리나라 전통의 고급스럽고 여성스러운 오방색으로 표현하고자 황(黃)은 중앙, 청(靑)은 동, 백(白)은 서, 적(赤)은 남, 흑(黑)은 북에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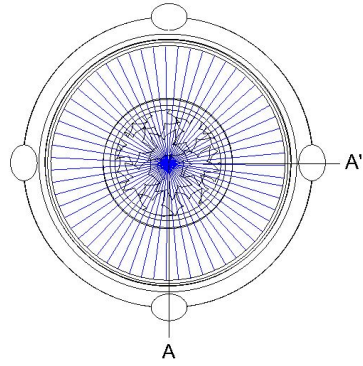


【작품 8】 한여름 밤의 꿈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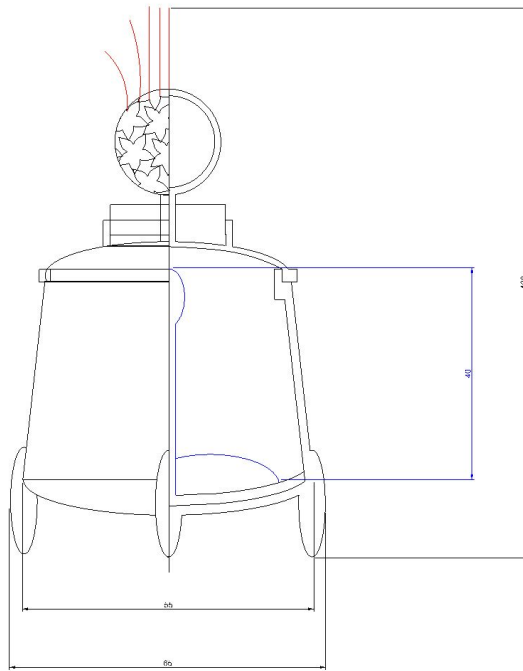
65×65×120(mm)

Silver, Copper, Stainless steel coiled spring, Rayon velvet,  
Pearl, Agate, Enamel, Turquoise, Lapis lazuli, Onyx, Amethyst

top view



front view & section A-A'



<작품 8> 한여름 밤의 꿈 2

## 【작품 8】 한여름 밤의 꿈 2

【작품 6】 한여름 밤의 꿈 1과 연결을 의도한 것으로 여름밤의 청량감을 표현하고자 떨림장식 스프링 끝에 청색(靑色) 계열의 보석류와 칠보로 색을 입힌 꽃문양 unit을 함께 부착하였다. 동양의 청색은 서양과는 달리 녹색부터 남색까지의 색을 지칭하며 차갑고 청명한 느낌을 주는 색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본 작업에서는 밝은 청색을 사용하여 ‘고요한 휴식’을 나타내<sup>11)</sup>고자 하였다. 이는 압박하지 않는 무한한 창공을 연상시키며 동시에 장소적인 배경을 한여름 밤의 바닷가와 연관 시키고자 하였다.

이 작품에서는 떨림장식을 꽃문양 unit을 pattern화 하여 만든 구의 표면을 따라 각도를 다양하게 하고 길이도 아래로 갈수록 점점 짧게 배치하여 움직임이 풍성한 입체감을 의도하였다. 이처럼 떨림장식을 작은 공간에 많이 배치한 작업은 떨림 운동을 할 때 형(形)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신비롭고 몽환적인 느낌을 극대화시키고자 함이었다.

합과 떨림장식 사이에는 밤의 어두운 설정을 표현하기 위해 오닉스를 평면의 원기둥 형태로 가공하여 배치하였으며, 내부에 와이어로 장신구를 꽂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 하였다.

---

11) 루돌프 아른하임,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옮김, (미진사, 2003), p. 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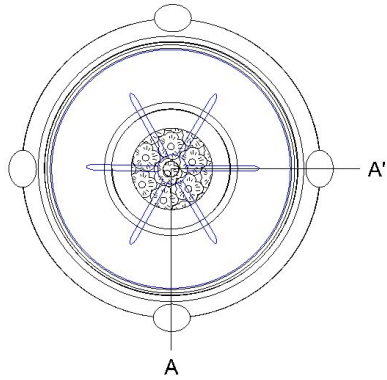


**【작품 9】 홀로 선 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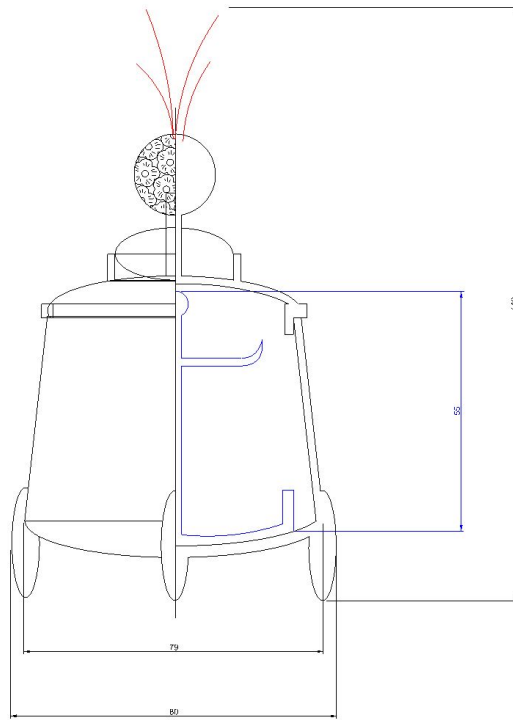
80×80×110(mm)

Silver, Copper, Stainless steel coiled spring, Rayon velvet,  
Coral, Amber, Peridot, Dyed Green Chalcedony

top view



front view & section A-A'



<도면 9> 홀로 선 나비

## 【작품 9】 홀로 선 나비

풀밭에 피어있는 꽃들 사이로 여유롭게 홀로 날고 있는 나비의 아름다운 날갯짓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풀밭의 질은 녹음을 표현하기 위해 옥을 둥근 언덕과 같은 캐보션 형태로 가공하여 작품 중심에 배치하고 약간의 높이를 준 뒤 꽃문양의 unit으로 만든 구 형태의 구조를 땀하였다. 또한 떨림장식 끝에 나비 모양의 unit을 부착하여 포인트가 되도록 하였다. 나비 모양의 unit을 부각시키기 위해 떨림장식을 간소하게 배치하였다. 나비는 생명체로 움직임이 있는 개체이기 때문에 떨림장식의 동적 요소와 더욱 잘 부합되는 표현이 되었다.

내부 구조는 6개의 고리를 배치하여 귀걸이의 수납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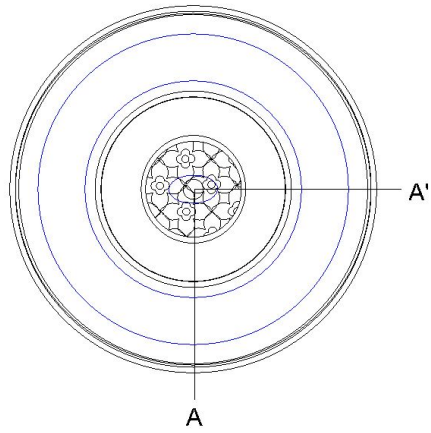
【작품 10】뜨거운 낮의 폭죽

120×120×20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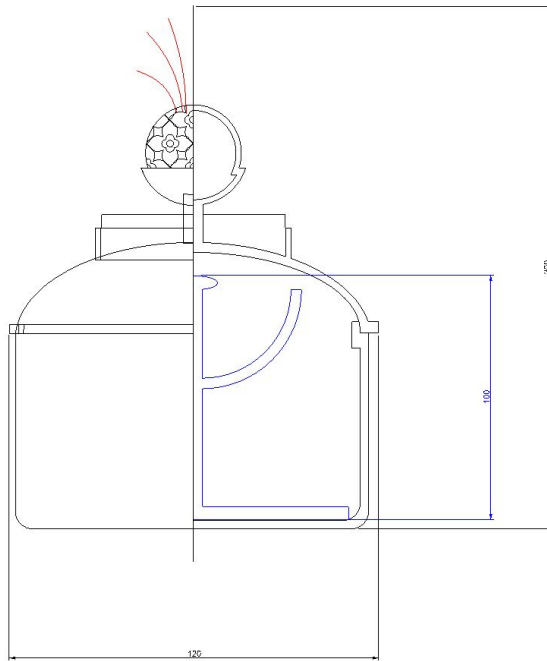
Silver, Copper, Stainless steel coiled spring, Rayon velvet,  
Agate, Coral, Milky Quarts, Onyx, Enamel, Dyed Green Chalcedony,  
Turquoise

- 47 -

top view



front view & section A-A'



<도면 10> 뜨거운 낮의 폭죽

## 【작품 10】 뜨거운 낮의 폭죽

“폭죽”의 이미지를 떨림장식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보통 밤에 폭죽을 터트리지만 본 작업에서는 시간적 배경을 한 낮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타인의 관점이 아닌 자신만의 입장에서 특별한 일탈을 꿈꾸는 주관적인 의도를 표현한 것이다.

폭죽을 하늘로 쏘아 올라간 중심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떨어지는 불꽃을 표현하고자 각도와 개수를 조정하였다. 떨림장식 끝에 부착한 보석의 색채는 불꽃을 표현하기 위해 빨간색과 주황색, 그리고 대낮의 노란색, 그리고 그 폭죽 불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나비를 달아 스토리를 이야기 하고자 하였다. 합 중앙의 원석은 대낮임을 표현하기 위해 붉은빛의 아게이트를 평면으로 넓게 가공하여 배치하였으며 원석 위쪽으로는 꽃문양의 unit으로 만든 구를 배치하였다.

합의 크기가 큰 편이고 원기둥에 밑면이 평면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리 구조는 생략하였다. 내부 구조는 위쪽에 와인 잔과 같은 구조를 만들어 작은 침 귀걸이 등의 수납을 용이하게 하였고 그 아래 공간은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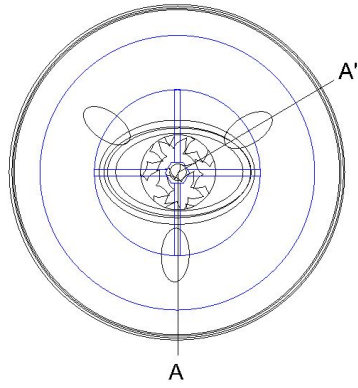
**【작품 11】 해칭한 날의 나들이**

90×90×14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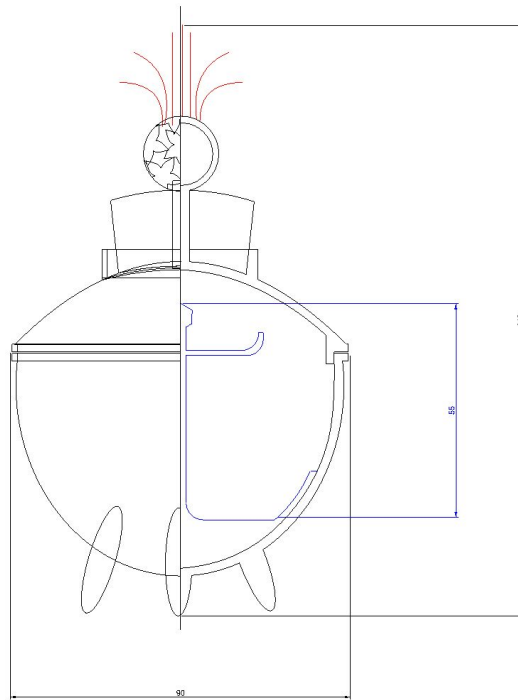
Silver, Copper, Stainless steel coiled spring, Rayon velvet,  
Lapis lazuli, Amber, Milky Quarts, Moon Stone

- 50 -

top view



front view & section A-A'



<도면 11>해청한 날의 나들이

## 【작품 11】 해칭한 날의 나들이

맑고 따듯한 날 심심한 나들이를 하는 느낌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나른한 오후의 편안한 느낌의 원형에 가까운 형으로 제작하고 넓지막한 깊이가 있는 큰 사이즈의 합으로 제작 하였다.

합과 장식부 사이에는 청금색의 라피스라줄리를 부채꼴의 타원형으로 가공하여 배치하였다. 라피스라줄리는 군청색의 짙은 파란색과 황금색의 금속광물, 백색 내포물이 함유되어 있는 보석으로 청남색 계열의 보석 중에서 작품의 분위기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크게 배치하였다.

그 위로 꽃문양 unit으로 만든 구형태로 중간부분을 제작하여 연결하였으며 떨림장식은 꽃문양 unit의 정수리 부분에는 흰색에서 노란 계열의 보석류를 부착하고 수직 각도로 조절하였고, 이 떨림장식을 원으로 둘러싸도록 이중으로 각도를 약 45도로 배치하고 그 위에는 꽃문양 unit을 부착하였다, 이렇게 하여 떨림장식 안에서도 2가지 각도의 선상에 배치하였는데 이를 통해 이중의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합이 깊은 구형으로 내부 공간이 비교적 넉넉하였기 때문에 위쪽에는 고리 형태의 장신구를 수납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었고, 그 아래 공간은 큰 장신구들의 수납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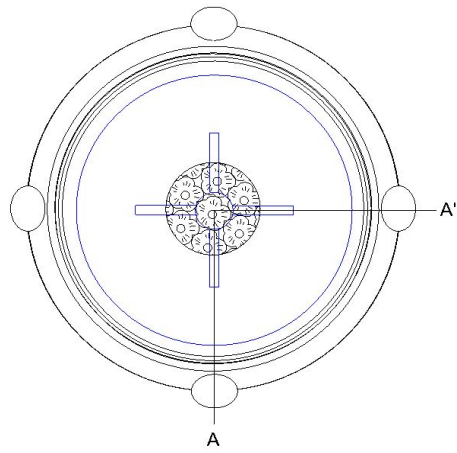
【작품 12】 널 위한 깊은 생각

90×90×14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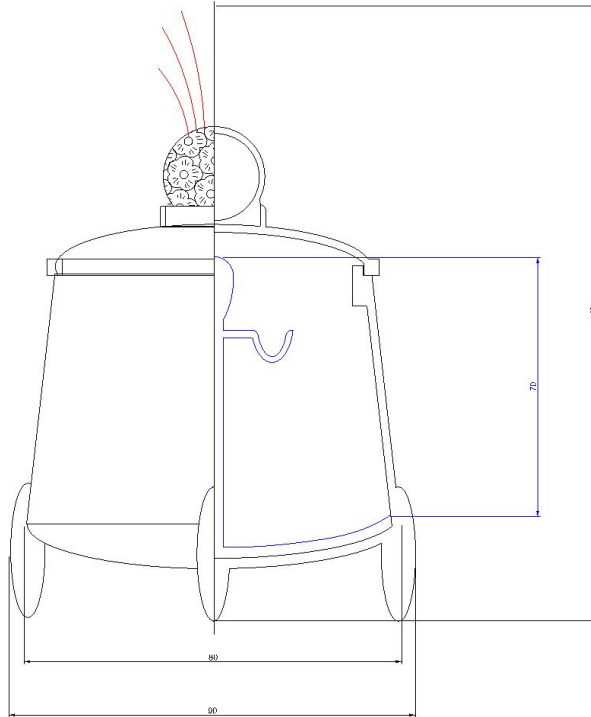
Silver, Copper, Stainless steel coiled spring, Rayon velvet,  
Enamel, Amber, Pearl, Amethyst

- 53 -

top view



front view & section A-A'



<도면 12>를 위한 깊은 생각

## 【작품 12】 널 위한 깊은 생각

이 작업은 기다리는 이를 생각하는 깊은 마음을 표현하였다. 의연하고 여유롭게 생각하는 이미지를 떠올리며 보라색과 노란색의 보색대비를 이용하였다. 시인 김영랑의 ‘가늘한 내음’에서 ‘오- 수심 뜬 보랏빛’이라고 표현하였듯 보라색은 애잔한 슬픔과 무의식의 색채로서 주제의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또한 노란 호박과 진주를 사용함으로써 어두운 계열의 침체되는 느낌과 균형을 맞추었다. 이와 같은 보색대비로 배치하여 움직일 때 각각의 unit들이 두드러지는 색채감을 보이게 유도하였다. 더불어 펄림장식의 탄성을 약간 느슨하게 하여 반동이 크지만 속도가 비교적 느리게 조정하여 끝부분에 부착한 꽃모양 unit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꽃술을 연상하도록 의도 하였다.

합의 형태는 단순한 기본 틀로 하고 합 윗부분에 꽃문양 unit을 pattern화하여 구 형태로 제작하였다. 전체 크기가 크지 않게 제작하였기 때문에 내부 구조에 고리와 같은 부분을 제작하여 합으로서의 실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Ⅲ. 결 론

공예는 인간의 감정을 소재로 하여 기술적인 방법과 형태의 완성을 통해 그 시대의 정신과 감각을 표현하는 실제적 생활예술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개성적인 자아를 표출하는 표현수단으로서의 의미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현대 공예의 디자인은 시각적인 표현수단으로 독자적인 조형성이 더욱 강조되며, 이에 따라 전통의 올바른 가치 인식 및 활용을 근거로 하여 국제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에 부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떨잠 장식부와 떨림장식을 응용하여 동적요소를 공통으로 사용하되, 실용성과 재료의 다양성을 통한 다양한 색채와 기법을 접목하여 합미 장식부로 활용하였다.

작품 제작을 통해 떨잠의 떨림장식을 응용한 결과 떨림장식의 울동감을 통해 제시한 공간을 보다 확장시키는 효과를 보였으며, 금속의 광택이 주는 반짝거림과 원석이나 칠보, 진주 등의 재료의 광택이 주는 효과로 인해 움직임이 더욱 부각됨을 알 수 있었다. 이 떨림장식은 스프링의 텐션을 조정하여 바람이나 진동을 통해서도 떨리는 움직임을 보였고, 작은 폭으로 파르르 떨리는 동적 요소로 인해 작고 여린 움직임을 연상 시키도록 의도 하였다. 이러한 동적요소를 가진 떨림장식을 통하여 동적운동을 나타내는 미적 가치를 금속공예에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떨림장식을 응용한 디자인은 리듬(시간)을 합미 적용시켜 인체

와 대상물, 나아가 주변 환경으로까지 시선을 확장시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 시킴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떨림장식의 떨림을 합에 부여하여 우리 고유의 우아한 미를 표현함으로서 현대 공예에 있어서 전통의 연속성과 기존의 보석합과 차별화되는 장식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떨잡의 장식부를 응용하여 주변의 다양한 움직임(바람, 생활속의 진동, 사용자나 관람자의 사용)에 의해 반응하며 나타나는 동적 효과를 나타내어 사용자나 관람자에게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금속공예 표현의 확대를 꾀하였다.

떨림장식의 운동성은 다양한 조형적 표현이 가능하게 되며 정지 되어 있는 조형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시간·공간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여 보다 많은 흥미를 유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떨림장식의 사용이 일률적이었고, 합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더욱 다양한 활용을 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덧붙여 오늘날 우리 전통 금속 공예 중 하나인 떨잡의 조형적 요소들을 응용하고 발전시켜 한국 고유의 독창적 금속공예의 개발에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김영숙,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1999  
백승정, 『문화 콘텐츠 시대의 디자인』, 한국공예문화진흥원, 2007  
서지민, 『장신구사』, 한국장신구연구원, 1986  
석주선, 『한국복식사』, 보진제, 1971  
유희경,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1986  
임명미, 『한국복식문화』 II, 경춘사, 1997  
장숙환, 『전통 장신구』, 대원사, 2002  
장숙환, 『남자 전통 장신구』, 대원사, 2003  
조효순, 『한국복식풍속사 연구』, 일지사, 1988  
한국문화재보호협회 『한국의 복식』, 문화재관리국, 1982  
『한국의 문화 이미지』, 문화관광부, 2001  
『한국의 미』, 국립중앙박물관, 1988  
『한민족역사문화도감』, 국립민속박물관, 2005  
조지 릭키, 『KINETIC ART, 20세기 미술총서』, 윤난지 역, 열화당, 1991  
루돌프 아른하임,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역, 미진사, 2003

### <정기간행물>

- 장숙환, 『옛 장신구의 멋과 기능』, 삼성문화재단, 2001  
금기숙, 「韓國服飾에 表現된 흔들림과 떨림의 美」, 『服飾』 No.15, 한국복식학회, 1990  
이선재, 고미연, 「朝鮮時代 女性の 頭飾에 관한 연구」, 『生活科學研究誌』 Vol.12 No.1, 숙명여자대학교 건강생활과학연구소, 1997

### <학위논문>

- 금기숙, 「조선시대 복식에 표현된 한국인의 미의식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전혜숙, 「조선왕조 사회의 내외용 쓰개류의 고찰」,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이선재, 「조선시대 유교사상과 의례복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인터넷사이트>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국립고궁박물관 <http://www.gogung.go.kr>

국립민속박물관 <http://www.nfm.go.kr>

보나장신구박물관 <http://www.bonamuseum.com>

# ABSTRACT

Research to apply trembling ornament for a case design

Song, Kim

Dept. of Craf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will analyze molding elements from the Korean traditional ornamental hairpin (personal ornament) and target to express it in a modern way by applying ornament hairpin's modeling elements into an impicature decoration.

Ornament hairpin is an accessory used in the ceremony for the queen or upper class females which is skill intensive and brilliant. Also, with various techniques and materials used such as spring, metal plate, jewelry contained trembling ornament called 'Thechulbanja' in Korean which is the representing trembling characteristic. In this research it will be selected by the usage considering practical use and work applying molding elements of trembling of the ornament.

It reflects movements according to various surrounding elements that bring psychological interest and trembling ornament's figures with colors will reflect light causing glittering effects. By observing these glittering can make one to induce psychological concept from the part ornament from the whole work piece. Through this, observers and users could understand that coincidence force could lead into the product's indirect involvement. Also, it could give the feeling of movement by applying trembling ornament part that contains light, metal, and spring to give movement with dynamic elements from the passive object.

From this research, I could find that the traditional industrial art's molding elements can possibility be applied as a new motive in the modern society and sincerely hope that this could give development and expand applying our tradition.